



보도 자료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기록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심의 예정

제네바 (2019년 5월 6일) -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기록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(UPR) 실무 그룹에 의해 오는 5월 9일 목요일에 심사될 예정이다. 이는 해당 국가가 받는 제 3차 보편적 정례 검토로, 회의는 인터넷에서 [생중계](#)된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보편적 정례 검토 실무 그룹이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심사할 14개 국가 중 하나이다. 해당 국가의 [1차와 2차 보편적 정례 검토](#)는 2009년 12월과 2014년 5월에 진행되었다.

보편적 정례 검토의 근거 자료는 1) 국가 보고서 - 심사를 받는 해당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; 2) 특별 절차(Special Procedures), 인권 조약기구, 기타 유엔 기구 등 독립적 인권 전문가와 단체들이 보고서에 포함한 정보; 3) 국가 인권 단체, 지역 단체,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다.

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사의 바탕이 될 세 가지 보고서는 [여기](#)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.

장소: 제네바 Palais des Nations, Room 20

일시: 5월 9일 목요일 14:30-18:00 (제네바 시간, GMT+1 시간)

보편적 정례 검토는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한 절차다. 2008년 4월 첫 회의가 열린 이후로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정례 검토의 1차와 2차 주기를 통해 두 번의 심사를 거쳤다. 3차 주기에서 국가들은 1차와 2차 주기에서 제시된 권고 중 후속조치를 약속한 권고사항의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, 해당 국가 내 최근 주요 인권관련 동향을 서술한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주 제네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의 한태성 대사가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.

해당 국가의 보고관 역할을 맡게 된 3개 국가('트로이카')는 에리트레아, 피지, 그리고 스페인이다.

해당 심사의 인터넷 생중계는 <http://webtv.un.org>에서 시청 가능하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사의 연설자 목록과 연설문은 [UPR Extranet](#) [아이디: **hrc extranet** (띄어쓰기 있음); 비밀번호: **1session**]에 게시된다.

보편적 정례 검토 실무그룹은 해당 국가에게 제시할 권고를 5월 14일 오후 다섯시에 채택할 예정이다. 심사를 받는 국가는 심사 중 권고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 권고는 채택 당일 언론에 미리 제공될 예정이다.

기타 질문 사항은 Rolando Gómez (+41 (0) 22 917 9711)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.

한국어 질문 사항은 송모란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(consultant.song@ohchr.org)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.

보편적 정례 검토에 대해 더 알아보기: www.ohchr.org/hrc/upr

UN 인권이사회: [Facebook](#) [Twitter](#) [YouTube](#) [Instagram](#)

서울 UN 인권 사무소: <http://seoul.ohchr.org/EN/Pages/HOME.aspx>